

## 강성재

### 기다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열리지 않는 창틈 비집고  
끈질기게 쏟아지는 겨울바람  
여름내 뜨거운 햇살에 몸살을 앓던  
정원의 분수대가  
비틀 비틀 옆길음치다  
기다림이 짧은 쪽으로  
아슬하게 기우뚱  
허공에 섰다

기다림도 날이 서면  
칼끝이 되는가  
누군가 날려 보낸 꼬리연 하나  
전선줄에 매달려  
아프게 소리칠 때 마다  
차갑게 염색되는 씨늘한 풍경  
그 스산한 길로



2004년 한맥문학 시부문 당선. 오래곤 문학회 회원. 미주 한국문인협회 회원.

우루루 달리는 나뭇잎들  
때로는 이 겨울의 숲속을  
목메이는 기다림  
잠들기도 하지만  
심한 고뿔에 울음을 토해내는  
나무의 신음 소리가  
소근소근 속삭임 소리로  
들리기도 하는 환청

마알장게 익은 햇살 한점  
헛기침 한번에  
환한 웃음이 반가운  
그 한줌의 꿈

봄이던가

## 강학희

## 엄마의 골무

반진고리에서 또르륵 굴러 떨어진  
 가죽골무, 이미 바짝 마르고 뻗뻗해도  
 여전히 엄마 냄새나는 엄마의 검지다.  
 엄마가 가리키는 곳을 따라가면  
 검지 뒤쪽으로 엄마가 지나간 행로  
 해적도 비밀 부호처럼 희미하게 그려있다.  
 아이처럼 뒤통뒤통 천천히  
 한 걸음씩 흔적 따라 걸음을 떼고 멈추어서면  
 고즈넉한 풍경 속 슬픔은  
 먼지와 바람으로 흩어지고  
 실핏줄처럼 퍼져가는 섬세한 엄마의 손놀림,  
 내 생애 속 아직도 늙지 않은 엄마는  
 새파란 시간의 그물을 곱게 짜 작은 생처럼,  
 물려 입을 배냇저고리 하나 집고 있다  
 엄마의 가죽골무, 나의 태궁이 따뜻하다.



이대 교육과 졸업. 1976년 도미. 샌프란시스코 거주. 2003년 《순수문학》 시부문  
 신인상. 한국문인협회, 재미시인협회, 세계한민족작가연합, 미주한국문인협회 회  
 원.

## 곽상희

### 비어서 하늘이다—이민자

깊은 적황색의  
눈眼이 타는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청노루발자국 찍혀있다  
발간  
겨울꽃나무열매  
지천으로 떨어져  
사시절 늘푸른  
솔나무잎의 냄새가  
난다

새鳥발처럼 가볍게  
바쁘게 움직이는  
그의 손

꿈을 움켜진



《현대문학》으로 등단. 뉴욕 현대 예술 아카데미 등에서 다년간 문학강의. 제1회 박남수 시인 대상. 시집 5권, 영시집 1권, 수필집 3권, 소설집 1권 등 다수의 저서.

그의 손은 늘 비어 있다

비어서 하늘이다

넘어온

바다를 닮아

언제나 파도가 넘실거리는

그의 혈관

싸리 꽃 나뭇가지 일렁인다

노을 빛 춤추는 그의

꿈의 나래

부시다!

## 기영주

## 실성한 사람의 노래

그는 때때로 시장 거리에서 내기를 했다네  
 중년에 장땡을 잡은 적이 있지  
 그런데 판돈이 하나도 없었어  
 화투장을 판위에 내던지고  
 그는 오래 정들었던 시장을 떠났네

몇해 전에 그림자 우글거리는  
 거리에서 마지막 내기를 하더구만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걸었지  
 엄지손가락에 힘을 주고 짚어 따라지를  
 거리에는 만국기가 걸려있었고  
 하늘은 어찌나 푸르던지  
 그는 그만 실성을 했다네

그 뒤로 그는 노래를 부르며  
 거리를 돌아다니네  
 얼마 전에 그를 만났더니 말하더군  
 근심도 걱정도 없고 거칠 것도 없다고



오렌지 글사랑 모임 회장 역임. 미주 시조시인 협회 회장 역임. 미주한국문인협회 이사. 시집 『맨해튼의 염소』(2002년). 현재 Orange County 에서 의료 개업.

나는 요즈음 밤에 창가에 앉아  
그 실성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를 듣네  
바람보다 가볍게 와서  
강물 되어 흐르는 노래를 듣네

## 김경용

### 귀향의 날

기억하는지  
엄동한과  
언 별들이 부서져 내리고  
칼바람에 시(詩)를 잃은  
밤길 먼 끝  
문고리에 들어붙는 추억들을

웃음소리 틈으로 들어서며  
벗는 외투, 묵은 탄식  
스쳐오는 따뜻한 손

활활 단  
홍당 껏바퀴에  
수집은 듯 맴돌아오는  
장시(長詩), 머나먼 시

천근만근  
무거운 여독에 막들은 내리고



《미주문학》 시부문 신인상(1998년). 현재 마운트 버논 나자렌 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 정교수. 저서로는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기호학의 즐거움』(한국백상출판문화상 수상작), 『Caged In Our Own Signs: A Book of Semiotics』.



꿈속으로  
찾아드는 시  
잊혀지는 시

기억하는지  
밤길 먼 끝  
문고리에 들어붙는  
잊혔던 시들을

## 김내수

## 인생찬가(人生讚歌)

보아라 !  
 한쌍의 새들이 짝을 지어 하늘을 난다  
 부는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솟는다  
 하늘 문이 끝없이 열린다  
 자유로다 평화로다  
 너와 나도 하늘을 난다  
 흰 구름 타고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산 넘어 바다 건너 저 하늘 끝까지 날으리다  
 새바람 일어난다  
 천지의 넓이 우리를 감도네  
 하늘과 땅의 진수, 질서 그리고 그 진실 속에  
 너와 나는 존재한다  
 우리의 삶은 시들지 않으리 이 우주 안에 영원하리  
 보아라 !  
 웅대한 아침 해가 하늘에 떠오른다  
 찬란한 그 빛이 어둠을 가른다.  
 장엄하고 거룩하게 만천하를 밝힌다.  
 온 우주의 힘의 근원임을 선포한다.



전남 곡성 출생. 내과의사. 《문학세계》 2001년 시 당선.

온 생명의 근본임을 선언한다.  
 듬뿍 가득히 바취다오  
 혼백에 깃들은 그림자를 거두어다오  
 하늘과 땅의 진수, 질서 그리고 그 진실 속에  
 너와 나는 존재한다  
 우리의 삶은 시들지 않으리 이 우주 안에 영원하리  
 보아라 !  
 한알의 씨앗을 흙에 묻으니 순이 나고 움이 트고  
 빈 가지마다 푸른 잎과 아름다운 꽃이 핀다.  
 그득히 열매를 맺는다.  
 너와 나도 향기로운 꽃이 핀다  
 참뜻의 싱싱한 열매가 열린다.  
 대지의 흙의 냄새 감싸고 돈다.  
 하늘과 땅의 진수, 질서 그리고 그 진실 속에  
 너와 나는 존재한다.  
 우리의 삶은 시들지 않으리 이 우주 안에 영원하리  
 보아라!  
 깊은 산속의 샘물이 흘러흘러  
 이 대지에 이른다 큰 바다를 이룬다  
 그 청량한 물소리 핏줄 따라 흐른다  
 뱃속 깊숙이 스며든다  
 혼백을 맑고 즐겁게 채워준다  
 마음의 거문고 발랄하게 어르고 켜는구나  
 너와 나는 기쁘고 즐겁게 노래 부른다.

하늘과 땅의 진수, 질서 그리고 그 진실 속에  
너와 나는 존재한다  
우리의 삶은 시들지 않으리 이 우주 안에 영원하리

## 김동찬

### 사랑 시

사랑  
시  
쓰기 어렵다.

시인이란 시인은  
열 번씩, 스무 번씩  
돼지 새끼 낳듯 뽑아놓았을 터.

백 번씩, 골백번씩  
사랑을 하면서  
살다간 사람들은  
말로  
일기로  
편지로  
사랑을 휘갈겨 놓았으니

내가 쓰는 사랑 시는  
신라의 한 처자가



《열린시학》 편집인, 글마루 동인,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장, 저서로는 산문집 『심심한 당신에게』, 시조시집 『신문 읽어주는 예수』, 시집 『봄날의 텃밭』

넷가에서 떨군 눈물이  
노래로 흘러 내려온 것.

햇빛에 바랜 이 거무튀튀한 자국은  
조선시대의 한 처자가  
잠 못 자고 쏟아놓은 핏자국일까.

인디안 청년이  
도끼로 나무에 팍팍 찍어  
약혼녀에게 남긴 유언일지도 몰라.

내가 마침내 찾아냈다고  
생각하는 시 구절도  
필시  
오래 된 책장의  
케케묵은 먼지일 터.

그래도 사람들은  
사랑을 앓고,  
시인들은  
사랑 시를 쓰고,

시인이 되다만 나는  
그대의 문 앞에서 서성거리며

아직도  
어려워  
어려워  
하고 있다.

## 김모수

## 지정석 指定席

햇볕 바른 눈부신 앞자리가  
 내 자린 줄 알고 우쭐거렸다  
 태초에 정해진 나의 지정석이  
 낮고 낮은 지구의 아래동네인 줄을  
 늦가을 해질 무렵에서야 알았다  
 나무로는  
 수액樹液을 길어 올리는 뿌리께  
 꽃으로는  
 꽃망울을 달기 위해 기다리는 꽃대 자리  
 바다로는  
 가늠 잡히지 않는 수심水深의 끝자리  
 땅으로는  
 더듬어가는 수맥水脈의 눈먼 뒷자리  
 하늘로는  
 수평선 깔고 누운 아득한 밑자리  
 지능으로는  
 고작 유치원 아이의 철부지 수준  
 천방지축 하늘의 꼭대기



《창조문학》시 등단. 미주한국문인협회, 재미시인협회 회원, 시와 사람들 동인.  
저서로는 시집 『달리는 차창에 걸린 수채화』, 『주홍빛 신호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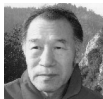


별자리만 우리러보며 살아왔다  
다 차려진 밥상에 수저만 들면 되는  
행운아로 착각錯覺을 했었다  
지금은  
한 생을 잘못 산 벌罰로  
고달픈 무릎에 힘을 싣고  
쉽 없이 녹슨 계단을 올라야하는  
채무자債務者의 신분身分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도  
구멍 뚫린 가슴 내색 없이 기워나가야 하는  
시리고 아픈 자리인 줄은 더욱 몰랐었다

## 김병현

## 황금동전

가을 은행나무 밑에 지천으로 떨어져 덩구는 황금 노다지  
 도둑들도 수전노들도 돌 보듯 한다.  
 황금도 지천이면 돌과 동격인가  
 저 황금으론 세상의 아무것도 살 수 없기 때문일 거야.  
 술과 마약과 여자를 살 수 없고  
 사치와 허영과 거품을 살 수 없고  
 학위와 벼슬과 명예를 살 수 없고  
 사랑도 행복도 황금으로 거래된다는데  
 저 황금으로 그런 착각들 살 수 없어 더욱 값지구나.  
 황금과 돌덩이가 동격인 세상  
 겨울 바람이 그 진가를 아는지 싹쓸이 해간다.



경북 예천 출생.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장 역임. 제1회 미주시문학상 수상. 현재  
 가수 베이커스필드 거주.

김산

## 思索의 길

하찮은 문젯거리 귀담아 두지 않으려  
바람외진 숲길을 혼자서 걸어본다  
어느새 가슴 속 별이 상심으로 와 닿네

흔탁한 생각일랑 여울물에 씻기고  
피로해진 심신은 소망으로 달군다.  
초록빛 부신 숲속에 아픈 사연 풀어놓네

목마름을 축여서 상큼한 기분으로  
신명나는 나날이 계속되길 빌어본다  
그 연민 헤아림으로 내실을 다짐하네



《해외문학》 시부문 신인상. 《자유문학》 시부문 추천완료. 《현대시조》 신인상. 한국문인협회, 재미수필문학가협회,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원.

## 김신웅

## 봄 편지

봄바람  
 바다 타고  
 금모래 밟에  
 위태롭게 아장거리는  
 어린아이 걸음으로  
 보리밭에 다달아  
 넘실거리는 춤으로 온다  
 가시밭이라 피해가지 않고  
 남긴 상처 꽃이 되고  
 골목길에선  
 무수한 발걸음 남긴  
 빙판 녹이며  
 어머니 부축하던 손에  
 쥐어지던 온기만하게  
 그렇게 번지며  
 세월이 건너는 강에  
 글을 남긴다.



50년대 토요 동인. 《시와 시론》으로 등단. 해외동포문학상, 가산문학상 수상. 미주 한국기독교문인 협회 회장 역임. 저서로는 시집 『대합실』, 『바람없는 날에도 뜨는 연』

## 김영교

## 그들이 가는 길을 보았는가

빛이 가는 길을 보았는가  
 시간이 가는 길을 보았는가  
 빛이 일어서면  
 휘감긴 어두움을 풀고  
 땅에서 시작하여 위로 솟는  
 처음과 끝  
 작은 흔들림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정밀하게 겨냥하여  
 무너뜨리며  
 빛과 바람이  
 안에 길을 틀 때  
 무릎 꿇게 하는 저 진동  
 분주함마저 지극히 아름답게 흐른다

아이는 흘러서 어른이 되고  
 출발은 흘러서 도착으로 가는 길



안테스 문학상, 해외 문학상, 이화문학상 수상. 현재 미주한국문인협회 부회장.  
 저서로는 시집 『우슬초 讖歌』, 『신호등(Traffic Lights)』, 『물 한 방울의 기도』,  
 『너와나, 그리고 우리』, 『소리 지르는 돌』, 산문집 『길 위에서』

보이는 길과 보이지 않는 길  
길이 없는 곳에도  
여전히 있는 길  
닿을 수 없는 이승의 거리에서  
밤과 낮의 양팔을 흔들며  
다가오는 바쁜 걸음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한다.

김영수

## 따뜻한 구름

비 갠 후

아침햇살에 구름이 분홍이다

침대 이불로 쓰면 아직 꿈은 따뜻해질까

그 사이

크림이 된 구름

누가 한 입 먹었네



79년 《시조문학》으로 등단. 동백문학상, 시조월드 문학상, 세계한민족 문학상 수상. 저서로는 시조집 『萬丈臺』, 『봄에』, 『어머니』, 『龜何龜何』, 『살며 사랑하며』, 우리시대 현대시조 100인선 『인연』, 『당신의 사과나무』

## 김윤선

## 풍경소리

당신의 이름을 ‘등’이라 부릅니다  
 어린 저는 환한 등에 업혀 검은 산맥과 바다 건너 은하수까지 놀다  
 오곤 했습니다  
 당신의 글씨체도 얼굴도 모른 채 이토록 늙은 제가 어제는 꿈에 당  
 신을 봤습니다  
 여전히 지워진 얼굴,  
 북적대는 사람들 속 한 걸음에 달려가 껴안습니다 아, 아버지  
 차갑게 뿌리치십니다. 어리고 아프지 않아서 이러시건가요? 얼굴  
 도 모른 채  
 당신보다 늙은 저를 젊은 당신은 영 영 못 알아보시는 건가요?  
 꿈이야, 어서 깨야지 하면서도 멀어지는 등 쫓아가느라  
 작은 맨발은 자두 빛, 주르륵 눈물까지 흘리다 잠 깬 새벽  
 창가에 달린 작은 ‘풍경’ ‘찰, 찰, 찰’ 저 혼자 읊니다  
 풍경, 네가 불렀나요?  
 천길 만길 허공을 질러 영혼을 불렀나요? ‘등’의 음악도 회색 코트  
 도  
 기억해낼 수 없는 저는 아직도 아버지를 ‘등’이라 부릅니다  
 ‘당신은 참 따뜻한 등의 사람이군요’ 이런 투의 정서로 만나고 해



서울출생. 중앙대 예술대학원 졸업. 2006 미주 《중앙일보》 신춘문에 시 부문 당선.



어지며

이만큼 왔는데도 여전히 당신은 ‘등’

당신은 진작에 영혼이었나요? 모르는 남자의 끌리던 등이었나요?

하지만 이제 저는 등이라 불리는 당신을 기다리지 않아요.

궁금하지도, 미움도 없어요 아직은 너를 모르겠노라고 외면하던

당신

바람결에야 다녀가신 살아 부르지 못한 당신이라는 등

긴 꿈에 든 찰나의 새벽 꿈속, 맑은 소리로 오셨던 아름다운 ‘등’

어리지도 아프지도 않은 지금 고이 접어 보내드립니다

은하수 너머 별빛 속으로,

## 김인자

### 그들은 누구인가

가을 밤  
별들이 찬란하다  
밤하늘의 별들이  
생명 같다

기차 타고 지나치던 산골 마을  
굴뚝으로 은하수  
흐르고  
창문으로 별빛  
쏟아진다  
초가지붕  
아늑한 마음  
사랑과 믿음이  
하늘에 가득하다

갑자기  
은하수가 빨려드는 9층 지옥\*  
블랙홀



서울 출생. 이대 약대 졸업. 월간 문학세계 등단. 저서로는 시집 『심안으로 보는 길』

혼돈과  
죽음과  
절규가 덮치는  
생명과 평화는 사라지고  
하늘의 지도가 바뀌고 있다

조용한 아침의 나라  
남쪽에서 부는 햇별에  
북녘 아이들  
별을 보며 꿈을 꾸다

한데  
지상에선 햇별 받고  
지하에선 핵무기 제조  
전쟁을 향한 핵의 꿈  
무엇을 위한  
누구를 향한 전쟁인가  
그들은 누구인가

핵 폭탄  
북녘 산골에서 포효하는 블랙홀  
7천만의  
생명과 평화를 앗아가려는  
그들은 누구인가

한반도의 역사여  
말하라

\*단테의 『신곡—지옥 편』

---

김준철

## 한 방울의 소나기

이것은 전쟁이다

실탄이 지급 되어진  
죽이지 않으면 죽는,  
아스팔트 위에서 벌어지는  
숨 가쁜 전투인 것이다

도시 위로 쏟아져 내리는 총탄들  
아우성치며 쓰러지는 가로수 잎들과  
피 흘리듯 젖어드는 건물들의 주검

살아남아야 한다

단 한발의 실탄만이 주어진 채  
결국,  
자신을 향해 쏘아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전투

마구 떨어지는 총탄 모두가 내가 되고 네가 되는 것이 아니다



서울 출생. 시대문학 등단. 저서로는 시집 『꽃의 깃털은 눈이 부시다』

단 한 발의 내가 있듯 단 한 방울의 네가 있을 뿐

수없이 지상에 명중되는 빗방울들 안에서

내게 쏟 총알을 찾아

머리를 들이 밀어야 하는 것이다

정확한 조준 없이도 세상을 저격하는 일은 얼마나 쉬운가

저 안,

어딘가에서

숫구쳐 오르듯 터져버릴 한 알의 내게 겨냥한다

## 김희주

## 간밤에 코요테 일엔 무슨 일이

그렇그렇 울고 싶을 땐  
 그들은 담요 한 장씩 올려 메고  
 플러튼의 코요테 힐(Coyote Hill)을 찾는다  
 평퍼짐한 산마루에 자리 잡으면  
 싸늘한 밤바람이 뺏속을 파고든다  
 그래도 무시당했던 그 눈빛들보다  
 훨씬 따뜻하다  
 어둠과 반죽된 알콜, 니코틴, 환각제 등  
 쏟아지는 별빛 아래 맞닥뜨린 본능들  
 마시고, 피우고, 던지고, 깨뜨리고  
 깔깔거리고, 시부렁거리고 줄줄 싸고  
 황홀한 향연 끝에 나동그라져  
 둥글게 구부러진 등위로 내려오는  
 빛의 직진엔 거부반응, 어디론가 떠난다  
 밤새 지켜보고 있던 선인장의 몸통엔  
 차마 삭이지 못한 아픔이  
 독침으로 돌아나 있다  
 간밤의 그 자리엔 살아온 날과 살아갈 날들이



《창조문학》 시부문 신인상. 시와 사람들 동인,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원.

구겨진 휴지 조각으로 텅굴고  
마지막 남은 양심은  
퀴퀴한 담요조각에 돌돌 말린 채  
역겨운 악취만 풍기고 있다.



## 문인귀

### 어째야 한다니?

사람은 객객 매연을 뿜고  
자연은 쿨럭쿨럭 매연을 마시고

햇별은 바삭바삭 대낮을 바수고  
달빛은 찌렁찌렁 밤을 열리고

하늘은 찢어져 너털거리고  
별들은 미끄러져 떨어지고

어째야 한다니?

조물주님 끝끝 혀를 차시다  
이제 곧 설레설레 사래를 치시면,



미주한국문인협회 이사장, 회장 역임. 창조문학 신인상 수상, 제12회 미주문학상 수상(2003년), 시창작교실 〈시와 사람들〉운영. 저서로는 시집 『눈 하나로 남는 가슴이 되어』, 『떠도는 섬』

## 박복수

## 쓰레기들의 돌진

화학 첨가물로 몽친 육가공제품  
 소뼈도 깎아 넣은 잡육  
 곰팡이와 싸우겠다고 들어앉은 방부제  
 혀를 즐겁게 하려는 화학조미료  
 코를 섬기려는 향료의 투신

씹을 때 보드랍고  
 원활한 기계작동을 위해  
 한몫 끼어든 유화제  
 아름답게 보이려고  
 뒤집어 쓴 색소

산화방지제와 합금 탄생한  
 미트볼, 햄버거, 소시지  
 한자리 톡톡히 잡은 첨가 포장물의 기름때  
 진공 팩에 들어간 가열살균

이만하면 오염 측면에서도



《수필과 비평》 수필 등단. 《문예운동》 시부문 신인상. 재미기독교문인협회 이사장 역임.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원.

높이 평가되나니,  
주머니 혈령한 주부들 향해  
돌진하는 쓰레기들

## 박영호

### 서민의 강둑

연작 서사시 『동방의 해 떠오르는 나라』 중에서

아득한 세월의 골짜기로부터  
할머니의 물때 묻은 흰 치마폭 펼쳐놓은 듯  
그런 빛으로 늘 하늘을 닮아 흐르는 강

여인들의 젓가슴 같은 둥근 산  
들을 휘돌아서  
늘 배고파 잉잉대던 아기들의 목을 축이던  
어미들의 젓줄과도 같은  
희고도 푸른 빛으로  
늘 대지를 적시며 강은 흐른다  
오늘도 이 서민의 강둑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면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새벽안개 속에  
토기를 들고 서성대던  
옛 선민(先民)들이 보이고  
어디선가 흥겨운 장단소리도 들리지만

태평성대의 노래 소리는 잠시뿐



《자유문학》 시 2회 추천으로 등단. 《문예사조》 평론, 《해외문학》 수필 부문 신인상, 가산문학상(평론)수상. 한국 문협,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원. 《미주시인》 편집주간.

가뭄에 마른 긴 강줄기를 따라  
마과람이 갈대 숲을 휘젓고  
이내 쏟아지는 장대비에 강물이 넘치듯  
어디선가 들리는  
이적들의 말발굽 소리와  
길고 긴 피난민의 긴 행렬들

내 어린 시절 겪었던 전쟁  
강을 울리는 천둥 같은 포성  
귀를 찢는 비명소리 들리고  
피눈물이 흘러가고  
주검들이 흘러가고  
골육이 갈라지는 이별과 슬픔  
황토빛 홍수로 흘러갔다

강물은 오늘도 하늘 따라 흐르고  
낮이면 우리의 슬픔을 강바람이 실어내고  
밤이면 민족의 한을 찰랑이는 강물에 행구어  
달빛 별빛에 씻어내고 있다

철따라 찾아든 연어들  
이 강 찾아온 실향민마다  
강물에 손 적시어 귀향의 회포를 풀고  
인생에 지친 낙오자들

고통과 패배의 빈 소주병을  
강물에 띄워도 보내지만

역사의 아픔을 모르는 젊은이들  
꿈과 사랑과 희망에 젖어  
강물을 추억의 사진 속에 담아들 간다

그러나 그러나  
강물 들이키고 허한 강바람에 배를 불리던  
허기진 세월의 고향 땅이 차라리 그리운  
실향민의 주름진 눈 그늘 속에는  
오늘도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먹을 것을 찾아 산과 들을 헤매고 있을  
북녘 아이들의 누른빛 얼굴들이  
강물에 노을 빛으로 타고 있다.

깊고 푸른 강  
그 강 바닥에 잠겨 사는 슬픈 혼령들은  
그들이 왜 죽어야만 했는지  
이유를 모른 채  
오늘도 강바닥을 슬피 떠돌고 있다

언제쯤일까  
북행열차의 기적 소리가

강물 위에 길게 울려 퍼지는 날  
철교 위를 굴러가는 우람한 바퀴 소리에  
물속에 잠겨 사는 혼령들  
두 손 들어 솟구쳐 오르고  
강물도 너울너울 춤을 추며 흘러  
강둑에 배어있는 우리의 피맺힌 한을  
씻어내고 씻어내어  
하늘빛 같이 고운 빛으로  
다시 푸르디 푸르게 흘러 가리

## 배송이

### 이유

시냇물이  
얼음 빗장을 열고  
노래하며 흐르는 건

수초가 머리 풀고  
춤을 추는 건

버들강아지  
숨털 반짝이는 건

온갖 물감 들고  
꽃들이 피어나는 건

내 마음  
싱숭생숭 들뜨게 하는 건

햇살이  
대지위에 새기는



강원도 삼척출생. 《창조문학》 시 등단. 시와 사람들 동인,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원.



아, 봄.

## 백선영

### 담쟁이

거칠고  
험한 돌담  
감싸 안는

보잘것없이  
헐벗은 울담  
덮어주는

비바람에  
금이 간 흙담  
다독여 이어주며  
오르는 손

가을에  
진홍빛 곱게  
물들여주는

겨울 담을



《한국일보》 신인상 시부문 입상, 《창조문학》 신인상 수상. 시와 사람들 동인. 미주 한국문인협회 회원.

넘지 못한 아버지

초록빛

봄마다 찾아오시는 선(禪).

## 변재무

## 깍데기

Bee Canyon에 가면  
 벌이 없다  
 뭉개진 꽃밭에  
 빈깍데기만 쌓이고 있다

알 속을 끄집어 낸 빈 상자, 말라가는 나무껍질  
 말을 잃은 TV, 다리 부러진 탁자, 빛바랜 옷가지들  
 밑창 없는 신발짝 그리고 또 있다

찢어진 의자에 기대고 있는  
 타이어 한 짝  
 바람이었다  
 70마일로 달려온 깍데기였다

누가 아버지를 깍데기라 했나  
 허리가 꺾이고  
 타이어처럼 둥근 어깨를  
 석양 속으로 밀어 넣고 있는 아버지



미주 《중앙일보》 신춘문예 논픽션 당선, 《창조문학》 시부문 신인상. 글마루, 시와 사람들 동인,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원. 오렌지글사랑모임 회장 역임.

Bee Canyon에 가면  
꽃도 없고 별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  
깍뎌기만 수북이 쌓여있다.

## 석상길

### 일라거라 나의 시여

원래 노래를 잘 부를 줄 몰라  
나의 시가 잘 팔리지 않는데

지랄 같은 봄은 잊어버리지도 않고

마리린몬로 마냥 섹시하게  
엉덩이를 흔들며  
골목을 휘젓고 돌아다니네

날씨가 좀 춥더라도  
일라거라 나의 시여

겨울새가 앓고 싶어 눈독을 들이게\*

매화꽃 망을 마냥  
시눈(詩眼)을 열어라  
돌꽃 눈도 달아라

\* 조선조 시. 서. 화가 허련의 묵매도에서



1939년 출생. 1980년 이후 미주 《동아》, 《중앙》, 《한국일보》에 시 발표로 문학 활동. 1994년 《창조문학》 시 신인상. 미주한국문인협회 이사.

## 석정희

## 가슴엔 아직 그 눈이

갈피에 묻혔던  
빛바랜 사진 한 장  
밝은 불빛에도  
희미한 얼음

별 비추이다  
바람 불고 비 쏟아져  
창살에 부서지던 빛  
안으로 와 다시 쌓이고

계단을 타고 오르던  
빛을 가리던 눈송이  
지금 어디에 쌓였을까  
쌓여가고 있을까

빛바랜 사진 속의  
바람과 별과 그 비와 눈  
가슴에 눈발로 남아



Alongside of The Passing Time 영시 등단. 한국크리스천문학, 《창조문학》 신인상. 한국문협, 미주문협, 미주시인협회 회원, 미주크리스천문협, 국제펜클럽한국본부 회원.

아직 녹지 않고……



송영구

혀를 펴고 싶다

입에 물고 웅얼거림에 지쳤다  
타액이 용광로에 산화한다  
귀는 여든이 지나 벌들의 난장판 놀이 뽁뽁만 거꾸 먹는다  
담배 한갑 사며 다시 혀가 기절한다  
떨러 넣은 주머니속 손에 긴장 수(水)가 흐른다

보았다  
섬광을 빌려 올 수 있겠다  
태백운명철학관  
털 보료 위에 정좌 짙은 염색 얼굴  
칼이든 눈으로 내 전신의 꺼풀을 벗기며 독설을 던진다  
에고 말년에 편히 밥술 얻어먹으러 왔지  
녹녹치 않지 털어놔 풀어줄게

컷밥을 녹음테이프로 파내고  
화장실서 오십 바퀴 돌며 입술 모아도

감읍하고



2005년 《한울문학》 신인상 수상. 한울문학문인협회,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원.

효험 짱 좋은 부적 있으면  
영어 무지 잘하는 걸루

## 안경라

## 유채꽃

누이의 급성간염 노랗게 어지럽던 시절  
 어머니 손바닥에 스며들던 물, 유채꽃  
 모양 없는 병 속 가득 들녘이 따라와  
 밤마다 소곤대는 꽃의 말 반침이 되어주고  
 캄캄하게 얼었던 땅에서도 삶은 그렇게 풀려났지요

흙처럼 단단했던 뿌리의 눈,  
 다시 햇살의 줄기를 잡고  
 잔잔한 색깔로 다듬어져 가는  
 당신 마음같은 저 꽃들

오래도록 감추고 있던 그리움  
 어머니,  
 하늘을 밀치며 올라옵니다  
 바람을 헤치며 퍼져갑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어둠속에  
 어둠을 녹이시던 어머니, 당신 속에



1990 미주 《중앙일보》시 당선. 1997 《한글문학》시 추천. 2000~02 북가주 소노마카운티 한국학교 교장 역임. 재미시인협회,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원.

있었네요

있었네요

바쁜 도시를 비껴서 길 열리는 삼월  
고향같은 저 언덕을 오르는 어머니 그리운,  
누이가 보여요  
누이를 닮은 환한 꽃들이 보여요

## 안선헤

## 사막에 비 지나가면

찬비는 알까  
 널 만나 회춘하는 사막을  
 근근이 부지한 목숨  
 파릇파릇 생기 돌아나는 모래땅  
 자갈밭 모래톱을 비집고  
 눈물처럼 피어오르는 눈물 꽃  
 봄 찾아  
 꽃을 찾아  
 나비 한 마리 날아든다.  
 꽃향기 천릿길 달려가더니  
 꿀벌 떼 몰아온다.

접속되지 않는 그리움  
 깊은 시름의 바다에서  
 신음하던 고독의 그 시간들이  
 보일 듯 산화하는 아지랑이

넌, 봄을 가불했다



경남 마산에서 태어남. 2002년 《순수문학》으로 등단.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원.

힘들 때 모은 눈물  
보석처럼 빛나는 너의 언어  
사막, 네 가슴 뛰고 있다.

## 오연희

### 밥술

뒷마당 한 구석에  
초라한 물골의 밥술 하나, 쪼그리고 앉아 있다  
빙 둘러 붙어있던 걸치개는 부서져나가고  
몸통만 덩그렇게 남은

저 알몸 속에서  
부슬부슬 익어가던 구수한 살 내  
벌떡벌떡 숨을 몰아쉬던 입술  
가슴을 열면 이팝꽃 눈부시던  
푹푹한 한 시절 있었다

불더미에 얹혀서도 성급히 타오르지 않던  
몽근한 기력을 다한,  
퍼주고 또 퍼주고  
굵히고 굵혀 얹어진 바닥

탄탄하던 몸  
붕긋 펼쳐져 날아갈 것만 같던 치맛자락



《심상》시 등단. 《해외문학》수필 부문 신인상. 미주 《중앙일보》신춘문에 신인 문학상(년픽션). 글마루, 시와 사람들 동인. 미주한국문인협회 이사, 웹 관리 위원장.

그 윤기 흐르던 처음도  
거친 마지막도  
홀홀 털어버린, 허방 속에  
햇빛과 바람  
온종일 소슬거리고 있다



## 오영근

### 찰나와 영원 사이

눈을 뜨면 찰나  
눈 감으면 영원.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가.

눈을 뜨면  
호사스런 충천연색  
눈 감으면  
의미심장한 흑백영화.

하루에도 수천번  
찰나와 영원 사이를  
오가며  
영생의 꿈을 즐긴다.

빛이 들어오면 생존이고  
흙이 들어오면 죽기로 하자.



2003년 한국 《좋은사람》에 정공채, 윤강로 시인 추천으로 등단.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문리대학 교수 퇴임. 오레곤 문학회원,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원. 저서로는 전 공서적과 『아담과 이브의 배꼽』 등 20권 번역 및 저술, 시집 『시느』, 『시는 사랑』

관이 덮이면  
목이 비틀려도  
이를 악물고라도  
눈을 감고야 말리라.

영원히 돌아가는  
흑백영화를  
즐기기 위하여.

## 오정방

## 내 나이 66

나이보다 젊게 보인다는 말은  
 자주 들어오고 있는 일이지만도  
 이 철없는 젊은이야  
 웬만하면 더 이상 이렇게 묻지 말게나.  
 ‘금년에 연세가 어떻게 되느냐고?’  
 아닐세,  
 얘기 못할 것도 없지  
 그게 무슨 감출만한 큰 비밀이라고

나도 반 100년 전에는  
 열여섯 이 팔 청춘이었고  
 40년 전에는  
 아직도 꿈 많던 숫총각이었고  
 30년 전에는  
 두 아이의 자랑스런 아버지였고  
 20년 전에는  
 식솔과 미국으로 온 가장이었으며  
 10년 전에는



《세기문학》시, 미주 《중앙일보》시조, 《문학과 육필》수필 부문 등단. 현재 미주 한국문인협회 이사. 오레곤문학회 회장. 시집 『다시 태어나도 나는 그대를 선택 하리』, 『그리운 독도』, 『영혼까지 독도에 산골하고』(공저)

처음으로 할아버지가 되었다네

그러니까 올해 내 나이는 6뽕  
졸업이 가까운 6학년 6반인데  
잠시 앞을 내다보건대  
살아서 맞을지 죽어서 맞을지  
그건 한 분 밖에 모르는 일이지만  
11년 뒤에는 희수喜壽가 되고  
22년 뒤에는 미수米壽가 되며  
33년 뒤에는 백수白壽가 된다네

생각보다 세월 참 빨리 잘가는구만  
자네도 지나놓고 보면  
인생이란 게 정말 잠깐임을 느낄게야

## 유봉희

## 나이테의 소리가 들리나요

시계 소리만 커지는 아침 열시  
 누군가 자꾸 벽을 두드리는 소리  
 그 울림 집안을 채운다  
 나가보니 머리에 빨간 모자를 쓴 딱따구리가  
 콘크리트 벽을 쪼으고 있다  
 많은 나무 놓아두고 하필이면 벽을  
 부리 아프게 두드려 보아도 벌레 한 마리 없는  
 집 한 칸 세들 수 없는 벽을 .

눈 먼 새인가  
 시각이 멀면 청각이 밝아진다지  
 벽 속에 숨겨진 나무 소리를 듣나 보다  
 잠자고 있는 집안의 가구들을 깨워  
 그들이 먼 기억으로부터 일어나는  
 소리를 듣나 보다

저것 보세요  
 책상 나무 무늬가 파도처럼 출렁인다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2002년 《문학과 창작》 신인상. 저서로는 시집 『소금화석』(2003년), 『몇 만년의 걸음』(2006년), 『英譯 한국현대시 99인선』(2006년)

마루 바닥이 물썬 송진내를 토해낸다  
창틀에서 푸른 가지가 피어난다  
어떤 나뭇가지는 벌써 하늘을 가릴 만큼 커져 간다

빨간 모자 쓴 딱따구리가 획 날아간다  
나무 창틀이 솟아올린 숲으로.

## 윤휘윤

## 흑백사진

선생님이 봄 소풍날을 발표하자  
 이학년 사반 씨동아들은 와와 발을 구르며 뛰며  
 손뼉아 기다렸던 운동장은  
 울긋불긋 잔칫집 같았다

드디어 교장선생님 당부의 인사 말씀이 막 끝나고  
 열중쉬어 조금 지나  
 오시마고 약속하셨던 할매가 하매나 오실까  
 까치발로 조마조마 눈과 귀가 교문으로 쏠려 있을 그 때  
 하마터면 대열에서 뛰쳐  
 할매 치마폭에 얼굴을 묻었을 뻔 했던, 할매는

장농 맨 밑바닥에서 금세 꺼내 입으신 듯  
 꼬깃꼬깃한 명주치마저고리와 빠질 듯 흘러내리는 쪽진 비녀  
 오목 들어간 볼 처진 눈꺼풀 주름투성이 얼굴  
 허리를 폈다 구부렸다  
 우산걸음으로 걸어오시며  
 학교에서 부르는 이름을 모르시는 할매가 숨차게



경북 예천 출생. 《심상》 신인상으로 등단. 한국문인협회, 재미시인협회 회원, 미주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저서로는 시집 『이민시대』

숙희야아! 숙희야아! 이거 받아라  
조금은 부끄럽고 자랑스런  
작은 가슴에 안기엔 무겁고 컸었다.

소풍지는 개울물이 흐르는 야산 큰 수양버들 그늘에  
자리를 잡았다  
할매의 까끌까끌한 굵은 손마디로 싸고 또 찼을 삼배 보자기 속에는  
입안에 넣으면 혀바닥에서 달고 살살 녹아 없어지는 눈깔사탕도  
목구멍을 톡 쏘고 넘어가는 사이다도  
깨물면 바삭바삭 청각을 자극하는 과자도 없고  
삶은 고구마 찰밥 볶은 콩 쭈떡 같은 것들만 들었다  
초등학교 주옥 이루어지지 않던 소원이  
사진첩 속에 할매와 손녀가 웃고 있다



## 이기윤

## 짚레꽃

시집을 열어보니  
 詩들이 잠에 빠져있다  
 깨워도 반응이 없어  
 밖으로 나왔다.

오솔길을 걷는데  
 꽃전에 맴돈다.  
 저 詩예요. 사랑해요.  
 마음이 얹혀  
 하늘에 물결이인다.

멀리서  
 나를 또 부른다.  
 옷자락 붙잡아 앓힌다.  
 하얀 빛  
 짙은 향기로  
 잠자던 詩를 찢러 깨운다.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한의학박사. 한국문인협회, 한맥문학동인회, 오렌지글사랑모임, 회전그네시동인회, 재미시인협회,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원. 저서로는 『내 마음의 무지개』(공저시집) 외 10권.

찢레 시심 함께  
서재에 돌아오니  
시집 속 詩들이 깨어나  
종알대고 있다.  
새들이 노래를 부른다.

## 이성열

## 후추와 고추

후추의 탁 쏘는 맛  
 그 이유를 알겠다  
 열매마다  
 까맣게 태운  
 뜨거운 여름 열기와  
 진력한 일벌들의 노고  
 온전하게 스몄으니

고추의 매운 맛도  
 알고 보면 그 원리  
 땅벌은 봉—, 봉—,  
 초봄부터  
 얼얼한 맛 날아오고  
 태양은 그 물들이라  
 긴 여름을 서성대고



“APA” 우수 신인상 수상 등단, 미주 《중앙일보》 단편소설 당선. ‘진열장의 시 (Poetry in the Window)’ 상 수상. LA Poetry Festival 구성위원, 미주한국문인협회 이사장 역임. 저서로는 시집 『바람은 하늘나무』, 『하얀 텃세』 등.

## 이용애

## 숨쉬는 겨울 산

비를 맞고 선 겨울 산을  
이른 아침부터  
빛속에 서서 뉘 놓고 바라봅니다

산밑에서부터 피어오른 비구름이  
정상에서 흘러내린 안개와  
환희의 입김으로 마주쳐  
온 계곡을 활아 내려갑니다

옷을 몽땅 잃어버린 알몸의 겨울 숲을,  
오묘한 몸체의 바위산을,  
옷을 입혔다 벗기고 다시 입히는  
저 신비스러운 순간들

어제까지 나를 감동시켰던  
웅장하게 버티고 선 엘 카피탄\*과  
지는 해를 맞받아 붉게 타오르던  
해프돔\*의 잘 생긴 얼굴도



충북 음성 출생. 1998년 미주 《중앙일보》 신춘문에 시 당선, 1998년 《문학세계》 수필 당선. 1999년 《한국시조》 신인상.

마지막 석양빛에 빛나던  
 키 큰 상록수의  
 노오랑게 물들었던 정수리까지  
 노련한 화가의 붓끝에서  
 속살 깊숙이 감춰진  
 핏줄기조차 올라와 움직입니다

뚜렷이 매혹적인 구석 없이도  
 가슴을 흔들어놓는  
 안개구름을 걸쳐 입은 겨울 산,  
 요세미티 계곡의 겨울 산 모습이  
 두고두고 내 가슴에 살아있을  
 한 폭의 숨 쉬는 그림이어라

\*엘 카피탄(El Capitan): 요세미티 공원에 있는 세계 최대의 바위. 계곡에서부터 3천600피트 크기의 바위.

\*해프돔(Half Dome): 요세미티 계곡에서 바라보이는 빙하와 지반의 움직임으로 북쪽 면의 반이 떨어져 나간 바위.

## 이윤홍

## 고요함이 나를 일으켜 세운다

한 밤중,  
 혹은 새벽에 잠을 깬다  
 잠깨어,  
 돌돌 말아 꼭 껴안고 있던 어둠을 놓고  
 몸을 연다  
 원 종일 소음 속에 숨어있던  
 고요가 다가선다.  
 바로 가까워서  
 바깥 어둠 속 아주 먼 곳에서  
 나팔통만한 귀라도  
 귀 기울이지 않으면 그대로 스쳐가는  
 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소리로 다가선다  
 그 소리에 가만히 몸을 연다  
 몸속에 달려있는 큰 귀, 작은 귀 다 열어 놓는다  
 한 마음 꼬—옥—잡아 터놓은 물길로  
 느릿느릿 더디게 고요는 들어서고  
 고요가 고요하게 들어서면 설수록  
 몸은 가벼워져



미주 《한국일보》 시부문 당선, 창조문학 신인상 수상, 재외동포문학상 시부문 입상, 국제펜클럽한국협회, 한국문인협회,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원, 시와 사람들 동인.

이렇듯 가벼워져  
고요 모르게  
고요하게  
통, 치면  
내 몸, 빈 소리  
바깥귀에까지 들린다

아, 고요란 이렇게 가벼워지는 것이구나,  
그 고요함이 나를 일으켜 세운다.

## 임혜신

## 465호실의 창(窓)

## I

저 백곰 잠이 드네 지나는 오소리들 바스락거리는 소리 못 본 척  
 밀어두고 머리를 땅에 누이더니 달빛 받아 낭창하게 밝아오는 첫 겨  
 울의 동굴로 스며드네 어디선가 제 심장 매질하는 바람소리 가여워  
 라 북풍의 옷자락에 매어달리는 마른 나뭇가지들 먼 별에서 오는 신  
 호음처럼 텅텅이 퍼져나가고 졸음에 겨운 백곰 훈훈한 몸에 혼을 묻  
 고 푸근한 엉덩이에 계락을 묻고 싱싱한 머리카락에 욕망을 묻고 새  
 하얀 짐승의 눈까풀을 칠적,

내리니,

북극의 긴 겨울이 깊어가네 게으른 추억의 마을에 눈꽃송이 하나  
 둘 내리기 시작하고 한 때 사랑했던 사람들 문득 돌이켜 보네 떠나간  
 사람 미워했던 사람 미련 없이 용서하기 시작하네 환하게 잠드는 생  
 의 다사다난한 고요, 해결이 없어도 좋다는 한갓진 결말, 가슴에 품  
 었던 사슴이며 새이며 물고기들 원한처럼 식욕처럼 색욕처럼 홀연히  
 사라지니 무방비의 저 큰 산 등줄이 그윽하네



워싱턴 문학, 미주 《한국일보》로 등단. Global Network of Poets, 빈터 동인, 워싱  
 톤문인회, 해외문학회,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원. 저서로는 『환각의 숲』, 『Korean-  
 American Poetry Anthology』(공저), 『임혜신이 읽어주는 오늘의 미국 현대시』



II

무생(無生)에 하얗게 옹드리는 큰 사내  
예뻐라, 옹드려 북풍에 씻기는 고운 자학  
그대 곁에 한 바탕 눈먼 흑한을 지피려니  
피어나네, 내 붉은 첫 생의 도화

장선영

## 진주의 비밀

이골이 났네요

그리움에도 이골이 났고  
기다림의 세월에도 눈물에도

길가에 텅구는 낙엽 한 닢에도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더구나 사랑은 담 너머 호박넝쿨

빵을 옆에 두고도  
눈요기로 때울 수 있음도  
그만 이골이 났네요

그런데 파도가 저렇게 설레는 밤하늘에  
알알이 박혀있는 별들을  
바라보노라면 왜 자꾸 가슴이 떨리네요

연한 살 속에 깊이 박혀있는



인천출생. 문예연구재단, 재미시인협회, 한국문인협회,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원.

끓은 모래알 하나  
무지갯빛 고운 진주로 태어나는  
조개의 비밀을 알고 있는 탓일까요

## 장태숙

## 목련, 그 화사한 미소를 위하여

홀트 가든에서 목련나무 묘목 사오던 날

막막한 생의 삼날을 세워  
 동그랗게 잔디를 떠내자  
 어둠 속에 갇힌 축축한 상처  
 소스라치게 환부를 드러낸다  
 그 속을 후벼 파는 일  
 웅크리고 있던 것들이 번쩍, 눈에 불을 켜다  
 까슬한 저항의 자갈돌들  
 내 의식의 결석(結石)처럼 단단히 박혀있다  
 네 속의 돌맹이를 제거해야 돼  
 부드러워져야 해  
 툭툭 울리는 신음소리  
 땀방울 붙잡고 피 묻은 기억들이 팔려 나온다  
 충치 뿔뿔히 자리처럼 덩그러니 입 벌린 구덩이  
 고요한 자락을 뒤흔드는 저 빈 자리  
 캄캄하지만  
 목련, 그 화사한 그리움의 미소를 위하여



1990년 《문학공간》 수필부문 신인상, 1992년 《창조문학》 시 부문 신인상, 2001년 창조문학가상. 저서로는 시집 『내 영혼 머무는 곳에』, 『그곳에 내가 걸려있다』, 『고요 속의 파문』

나는 좀 더 무자비해졌다

내 삶의 밑바닥에  
목련나무 허리 반듯이 세워지면서  
굳게 입을 다문  
흙의 껍질, 혹은 잔디의 흉터

## 장효정

## 어떤 심판

무너지기 위하여 솟구치는 파도처럼  
죽기 위하여  
온 몸이 으스스하도록 들이 받으며  
귀향길에 오르는 연어 때

주홍빛 몸 흰옷으로 갈아입고  
제의를 치르듯 알을 낳고 죽음으로 가는  
성스러운 길  
누가 그 길에 재를 뿌릴 수 있을까

인간은 그 길에 그물을 친다  
처절하게 뛰어오르는 만삭의 임부들  
그 앞에 번득이는 칼날을 들이대고  
목숨보다 소중한 복중 태아들을 꺼내  
허기진 욕심을 채운다

드넓은 태평양의 풍성했던 기억들  
날카롭게 비늘 세워 잘라내지만



이화여대 영문과 졸업. 1998년 《한맥문학》 등단. 국제 펜클럽, 미주시인협회, 이대동창문협,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원. 저서로는 시집 『내가 나를 엿보다』

차라리 길을 잃고 싶을 때도 있었으리라

수많은 상처로 온몸에 핀 울음 꽃

우리를 향해 던지는

악다문 비명이 하얗게 골짜기를 울릴 때

순리를 거역하며 식욕을 채기는

이 때 묻은 육신은 얼마나 부끄러운가

나는 내 죽음을 모독할지도 모를 저 그물을 생각하며

어떤 신성한 심판을 받고 있었다.

## 정문선

### 비에 젖은 시

그 얼굴이 보름달 보다 더 화안하다.

시인들의 모임집으로 가는 날  
차선도 보이지 않게  
비가 내렸다

폭우를 운전하는  
시인의 시는  
비에 젖었다

글씨가 번져  
읽을 수 없는 시  
가슴으로 흘러든다

창밖은 퍼붓는 비  
회고 붉은 들불에  
목숨이 걸린  
프리웨이를 달리는 차

“삼월”이란 제목은



라디오 코리아 수필 당선, 《창조문학》 신인상 당선. 시와 사람들 동인, 미주한국 문인협회 회원.



몸뚱어리를 잃은 채  
꿈으로 홍조(紅潮)되어  
푸른 잎 날개  
봄으로 흔들리고 있다.

## 정어빙

## 거리(距離)

돌담을 사이에 두고 있는 말썽들 사이에서  
 외치는 소리  
 그 소리 때문에  
 내 몸이 커다란 귀가 되었습니다  
 손에 닿으면 손이 귀가 되고  
 발에 닿으면 발이, 눈에 닿으면 눈이,  
 가슴에 와 닿을 때는  
 하늘을 덮는 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그 귀가  
 바람을 타더니  
 한 시진(時辰) 거리의 가깝고도 먼 곳에서  
 눈 없는 얼굴로  
 백팔 염주 입에 물고 작아지는 촛불 속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포도나무 뿌리에서  
 당신 옆에 서는 날 없어질 부끄러움인데도……



1939년 전남 광주출생. 《창조문학》 신인상 수상. 시와 사람들 동인,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원.

오늘은  
몸부림치는 울음 속에서  
그 누군가가  
내가 버린 귀를 들고  
그 동안 흘러버린 소리들을  
주어 담고 계심을 봅니다.

## 정용진

## 무궁화 꽃

미주로 이민 온 지  
 어언 서른여섯 해  
 떠나온 조국이 하도 그리워  
 문 앞뜰에  
 조국의 얼  
 민족 혼(魂)의 상징인  
 나라꽃무궁화 한그루를 심고  
 새 싹이 돋고  
 꽃이 필 때마다  
 찬바람에  
 잎을 떨굴 때마다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기울였다.

한해가 기우는 세밑  
 첫 서리가 내리던 날  
 무궁화나무 앞에 서서  
 경례를 붙이고



“지평선” 시인 동인. 미주한국문인협회 이사장, 회장 역임. 미주문학상, 한국크리스찬문학상 대상 수상. 저서로는 시집 『강마을』, 『장미 밭에서』, 『빈 가슴은 고요로 채워두고』, 『금강산』, 에세이집 『마음 밭에 삶의 뜻을 심으며』 외 1권.

전정가위를 들고  
결가지를 치기 시작했다.

더 나은  
민족의 꽃을 피우기 위하여  
더 강한  
민족의 힘을 키우기 위하여  
더 광활한  
한얼의 꿈을  
이 젊은 대륙에 펼치기 위하여

나는  
조국의 혼  
민족의 꽃 앞에  
온갖 정성을 기울여  
물과 거름을 주었다.

우리나라의 국화  
우리 조상의 얼  
우리 민족의 영원한 혼  
무궁화 꽃 만세!

## 채수옥

## 크레스트의 눈보라

눈 찾아간 날의 산은 몹시 축고 음산했다  
 폭풍 속 눈보라는 천지를 뒤덮고  
 발목 묻히는 눈 속  
 억새처럼 휘어지는 나뭇가지 위로  
 흰 새떼로 날아오르는 서릿발

바람은 한 폭 수채화를 그리고  
 풋풋한 내 유년의 시린 벌판이 회오리쳤다  
 잎새마다 아픔으로 얼어붙은 눈발  
 눈 덮인 산 웅크린 집들이 낮설지 않았다

계곡을 치닫는 거센 바람 울부짖으면  
 지붕 위 눈발 꽃잎으로 흩어져 내려앉았다  
 처마 끝마다 열린 창백한 고드름  
 토사에 앓겨간 벼랑 끝을 닮아 있었다

눈 무게만큼 기울도록 자신을 내어주는  
 휘돌리고 있는 나무는



강원도 강릉 출생. 미주 《한국일보》 시부문 당선, 《한글문학》 시부문 신인상.

때문지 않은 어느 영혼을 보는 듯 했다

뒤돌아 본 눈 쌓인 양지

절박한 외로움을 떨고 있는 버팀목 아래

여리고 푸른 작은 미래가 나무 그늘에 숨어

수줍은 희망을 키우고 있었다

## 최석봉

## 겨울 산

마른 가지 사이로  
 겨울 산이 잡힐 듯 내려와 있는데  
 산기슭에 작은 집들은  
 멀리만 보인다

지난 겨울  
 이른 아침 산를 오르다가  
 편안하게 죽어 있는  
 젊은이를 보고 놀라지 않았다

죽고 싶도록  
 그렇게 괴로웠단 말인가

사랑이나 진실 같은 것을  
 찾아 해매다 지쳐  
 겨울 산에 와 스스로 삶을 포기 한  
 시체를 보고 덤덤한 것은  
 겨울 산 찾는 사람과



《창조문학》시, 《아동문학》동시 등단. 미주 시문학 회장 역임, 현재 미주 문인협회 부회장. 저서로는 시집 『원원 세분 오 에잇 베니스 블루버드』, 『하얀강』, 『풍경은 혼자 울지 않는다』



연관성이 있는 걸까

그래

겨울 산은 조금은 슬프다

## 최선희

### 꽃밭에서

우리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울었지

그때  
하늘도 산도 바다도  
엉엉 울었지

울다 지친 눈물거품  
꽃으로 피고

밤새도록 꿈에 지친  
새벽닭도 함께 울었지

목을 뽑고 화를 치며  
피를 토했지



박두진 시인 추천 「문학과 意識」으로 등단, 《창조문학》 문학평론 등단. 저서로는 『바른 말 고운 말』, 『육영 반세기』, 『땅의 실수 하늘의 은혜』, 『시편정해』 등

## 한길수

## 낙타와 상인 5

성공해 돌아온다고 입술 깨물며 건넌 태평양 바다  
 일 년 내내 여름 같은 알몸의 서든 캘리포니아  
 말 더듬어 주문하다 햄버거 두 개 받고 찹찹매던  
 ESL 과정 밟고 경영학 실무 삼아 뛰어든 아르바이트  
 상가에 다섯 평 남짓 가게 인수 받아 열던 기쁨  
 긴 목에 도금 줄 걸어주며 달려 세는 쓸쓸한 재미로  
 몇 곱절 남기니 사는 맛도 곱절로 웃음꽃 피지만  
 스스로 선택한 길에 외로움이 나선형으로 파고든다  
 외로움도 나누면 반이라고 사막을 바라보는 사랑  
 선인장과 야자수 커가는 이국의 밤은 깊어간다  
 졸업하고 귀국하면 초록빛 바다 같은 꿈길 열리고  
 스페니쉬 몇 마디는 덤으로 얻어가는 줄 알았다

한보그룹 부도나고 굴지의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했다  
 IMF 허리케인이 한반도 강타하고 폐허로 잔해만 남은  
 한 학기 채 남지 않은 유학의 끝물에 침몰하는 귀국선

뗏목에 생을 의지한 보트피플은 국경을 넘나들고



충북 청원 출생. 경희사이버대학 문예창작학과 졸업. 《시와 시학》 추천, 《현대인》  
 평론 천료, 빈터 동인, 국제 펜클럽 한국본부 회원, 미주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도마뱀 꼬리 스스로 자르고 자갈 틈에 몸 숨기지만  
 애지중지한 살림만 늘어나듯 멀어져 가는 고국 하늘  
 산타모니카 해변에 앉아 눈 기다리듯 바다를 본다  
 절망도 잠시 노란 박꽃 진 뒤 배불러오는 아내  
 청춘은 힘없는 자의 아득해져가는 볼멘 목소리  
 불법체류자로 두리번거리며 대문에 금줄 거는 슬픔  
 뒤틀려진 세상에 웅알거리며 쓰러져도 일어나는 아기  
 널 지키려 살아남겠다는 약속을 아는지 아장거린다  
 열 번의 공휴일과 한 달 네 번의 주말이 지나가며  
 목에 걸린 세금 줄도 살아있다는 소중한 기쁨  
 돌아가기에 늦어버린 늙어가는 낙타를 누가 기억할까

이천년 미 연방 센서스 발표는 18만여 한인 불법체류자  
 두 가구 중 한가구는 고통 겪지만 불법노동자 일감으로  
 코끼리가 되어가는 1조 달러 육박하는 미국 지하경제

## 홍인숙(그레이스 홍)

### 불면

아무도 묻지 않았다  
오랜 날 숙명처럼 이고 온  
어둠 흔드는  
바람의 기척만 반가울 뿐

날지도 못하는  
새 한 마리 끌어안고  
매일 밤과 밤을 건너는 이유를  
아무도 물어오지 않았다

홀로 뒤척이며 사원 밤을 보내면  
반가움으로 찾아드는  
아침의 손  
오늘은 또  
어떤 열망을 안고 왔을까



《시마울》, 《한맥문학》으로 등단. 한국문인협회,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세계한민  
족작가연합,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원. 저서로는 시집 『사랑이라 부르는 고운 이름  
하나』, 『내 안의 바다』